벤투호, '동아시안컵 4연패' 정조준

오늘 일본과 마지막 3차전
K리그·J리그 맞대결 구도
미드필더 자원 조합 관건

한국과 일본이 동아시아 축구 최강 타이틀을 놓고 운명의 한일전을 펼친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남자 축구 대표팀은 27일 오후 7시 20분 일본 아이치현 도요타시 도요타 스타디움에서 모리야스 하지메 감독이 이끄는 일본을 상대로 2022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동아시안컵) 마지막 3차전을 치른다.

중국(3-0 승), 홍콩(3-0 승)을 상대로 2연승을 달린 한국은 4개국(한국·일본·중국·홍콩)이 풀리그로 우승팀을 결정하는 이번 대회 선두(승점 6)를 달리고 있다.

2차전에서 중국과 무승부에 그친 2위(승점 4·1승 1무) 일본과 비기기만 해도 대회 4연패를 달성한다.

동아시안컵은 국제축구연맹(FIFA)이 정한 A매치 기간에 열리지 않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 모두 유럽파를 소집하지 못하고 국내파 선수들만으로 선수단을 꾸렸다.

따라서 이번 한일전은 K리그와 J리그의 '토종 올스타'가 맞붙는 양상이어서 두 리그 수준을 간접 비교할 기회이기도 하다.

한국은 일본과 역대 전적에서 42승 23무 15패로 앞선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전적을 놓고 보면 6승 7무 5패로 백중세다. 특히 가장 최근 맞대결인 지난해 3월 평가전에서는 한국이 0-3으로 크게 패한 '요코하마 참사'가 벌어졌다.

패배를 기억하는 태극전사들은 이번에 자존심을 회복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우승 타이틀이 걸린 일전인 만큼 벤투 감독은 '국내파 정예' 라인업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벤투호의 '엔진'인 미드필더 황인범(서울)이 올림피아코스(그리스) 이적을 위해 홍콩전 직전 소집 해제된 것은 대표팀에 악재다.

지난 24일 일본 아이치현 도요타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동아시안컵 남자부 2차전 한국과 홍콩의 경기에서 강성진이 득점 후 동료들과 기뻐하고 있다. /대한축구협회 제공

패스워크를 중시하는 일본은 전통적으로 중원 싸움에서 한국에 우위를 보여왔다.

벤투 감독이 백승호, 김진규(이상 전북), 이영재, 권창훈(이상 김천), 김동현(강원) 등 남은 미드필더 자원들을 어떻게 조합해 일본을 상대할지 주목된다.

국내파 공격수 중 가장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온 조규성(김천)이 최전방 원톱으로 출격할 전망이다. 대표팀 선발 데뷔전인 홍콩전에서 멀티골을 터뜨린 강성진(서울)의 출전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연합뉴스

광주FC 헤이스, 원정서 시즌 9호골 도전

오늘 오후 7시 부산과 맞대결
상대전적 7승 10무 4패 우위

광주 FC 헤이스가 부산아이파크를 상대로 득점포 재가동을 노린다.

헤이스의 소속팀인 광주는 27일 오후 7시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부산과 하나원큐 K리그2 2022 29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

올 시즌 광주에서 2번째 시즌을 보내고 있는 헤이스는 25경기에 나와 8골 2도움을 기록했다. 좌·우측 윙어부터 최전방 공격수까지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멀티자원답게 헤이스의 활약은 광주의 승리로 직결된다. 광주는 헤이스가 득점한 6경기에서 4승 2무로 패한 적이 없다.

올해 2라운드 대전하나시티즌과 홈경기에서 멀티골을 작렬시켜 광주FC에 시즌 첫 승을 안겼고 7라운드 충남아산과의 경기에서는 극적인 역전결승골을 넣었다. 17라운드 경남FC와의 원정경기에서는 1-2로 팀이 끌려가던 상황에서 동점골을 만들어내더니 19라운드 충남아산과의 홈경기에서는 멀티골을 기록하며 팀의 3-2 승리와 함께 K리그 시도민구단 홈 최다 연승 신기록을 견인했다.

그러나 지난달 5일 19라운드 충남아산전 이후 공격포인트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 헤이스가 침묵하면서 소속팀 광주도 최근 7경기(1승 5무 1패)에서 승리는 단 한 번뿐이었다. 이에 헤이스의 공격포인트 재가동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광주다.

이번 상대 부산은 11위(4승7무15패·승점 19점)로 최하위에 머물러 있으며 최근 4경기 연속 무승(1무 3패)에 무득점까지 이어지는 등 분위기가 다소 가라앉았다.

부산과의 상대전적은 7승 10무 4패로 광주가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올 시즌 두 차례 맞대결에서 전승(홈 1-0, 원정 3-0 승)을 기록하는 등 자신감도 충분한 상태다.

하지만 부산은 저력이 있는 팀이다. 주포 안병준이 팀을 떠났지만 김찬, 박정인, 최준 등 젊은 선수들과 함께 라마스, 문창진, 이한도, 한희훈 등 K리그1 무대를 누볐던 선수들이 대거 합류하면서 전력이 강화됐다.

광주는 약 2주간의 꿀맛같은 휴식을 통해 떨어진 체력을 회복하고, 흐트러진 전력을 다시 재정비했다. 한 경기를 덜 치른 2위 대전과의 승점은 '8점'차다. 광주는 부산전 이후 오는 30일 대전과 중요한 홈경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승리로 분위기를 끌어올리겠다는 각오다.

헤이스의 활약과 함께 광주가 부산을 꺾고 2위 대전과의 격차를 벌릴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조혜원 기자

'부상복귀' KIA 놀린 오늘 NC전 선발등판

부상 탓에 교체가 예상됐던 KIA 타이거즈 놀린(33)이 27일 NC전에 선발등판한다.

오랜 부상을 털고 26일 1군 선수단에 합류한 놀린은 NC 다이노스와의 3연전 1차전에 선발 복귀전을 치른다.

놀린은 올 시즌 8경기에 출전해 2승 5패 평균자책점 3.53을 기록한 놀린은 지난 5월 훈련 도중 종아리를 다쳐 전력에서 이탈했다.

재활을 마친 놀린은 두차례의 퓨처스 실전 투구를 성공리에 치렀다.

지난 13일 상무와의 퓨처스(2군)리그 경기에 선발 등판한 놀린은 1⅔이닝 동안 3피안타 2실점으로 부진했지만, 직구 최고 구속이 시속 145㎞에 이를 정도로 나아진 모습을 보였다.

22일 kt wiz와의 2군 경기에 다시 선발 등판해서는 4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내며 KIA 코치진의 기대감을 높였다. 직구 최고 시속은 144㎞에 불과했지만, 커브와 체인지업 등 변화구 위주로 투구하며 kt 2군 타선을 완벽하게 틀어막았다.

물론 놀린의 교체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KIA 구단은 복귀전 성적에 따라 놀린의 교체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예측된다. 8월 초 귀국할 것으로 알려진 장정석 단장이 여전히 현지 시장을 둘러보며 외국인 선수를 물색 중인 이유가 이런 추정을 뒷받침한다.

KIA 관계자는 "놀린이 2군 경기에서 변화구 위주의 투구를 하며 잘 던졌다"며 "문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직구의 구위다. 지금보다 구속을 더 끌어올리면 1군 복귀전에서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부상 이후 여러 차례 교체 위기에도 꿋꿋이 버티며 복귀를 앞둔 놀린이 KIA 코치진을 만족시켜 한국에 남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연합뉴스

공격하는 이민아 26일 일본 이바라키현 가시마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동아시안컵 여자부 대만과의 경기에서 이민아가 공격하고 있다. 한국이 4-0으로 이겼다. /연합뉴스

흥국생명-IBK 기업은행 순천 KOVO컵서 개막전

돌아온 김연경(34)을 앞세운 흥국생명과 '맹장' 김호철 감독이 이끄는 IBK기업은행이 2022 순천·도드람컵 프로배구대회의 문을 연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내달 13일부터 보름간 전남 순천 팔마체육관에서 열리는 2022 순천·도드람컵 프로배구대회 남녀부 대진과 일정을 26일 발표했다.

GS칼텍스, 지난 시즌 일본 V리그 우승팀인 히사미쓰 스프링스와 함께 추첨으로 A조에 편성된 흥국생명과 기업은행은 8월 13일 오후 1시 20분에 벌어지는 개막전에서 격돌한다.

흥국생명 지휘봉을 새로 잡은 권순찬 감독이 데뷔전에서 백전노장 김호철 감독을 제압할지 흥미롭다.

곧바로 오후 4시부터는 GS칼텍스와 히사미쓰의 경기가 이어진다.

페퍼저축은행, 한국도로공사, 현대건설, KGC인삼공사가 경쟁하는 B조 경기는 14일에 시작한다.

조별로 3경기씩 치러 1, 2위 팀이 준결승에 진출하며 결승전은 8월 20일에 열린다.

여자부에 이어 남자부 경기는 8월 21~28일 같은 장소에서 벌어진다.

A조는 우리카드, 한국전력, 현대캐피탈, KB손해보험, B조는 OK금융그룹, 대한항공, 국군체육부대, 삼성화재로 이뤄졌다.

우승상금은 남녀 5,000만원, 준우승 상금은 3,000만원으로 같다. /연합뉴스

권순우, ATP투어 단식 50승 애틀랜타 오픈 16강 진출

권순우(76위·당진시청)가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단식 50승 고지에 올랐다.

권순우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린 ATP 투어 애틀랜타 오픈(총상금 70만8,530달러) 대회 첫날 단식 본선 1회전에서 마르코스 기론(55위·미국)을 2-1(7-6〈7-3〉 4-6 7-5)로 물리쳤다.

이로써 권순우는 ATP 투어 단식 본선 및 데이비스컵에서 통산 50승을 달성했다. 올해 성적은 13승 16패가 됐고, 통산으로는 50승 48패다.

한국 선수로는 이형택(46) 오리온 감독이 161승 164패를 기록했고, 정현(26·499위)은 86승 69패의 성적을 내고 있다.

권순우는 2회전에서 토미 폴(36위)-잭 속(106위·이상 미국) 경기 승자와 8강 진출을 다툰다.

이 대회 1, 2번 시드는 라일리 오펠카(17위)와 존 이스너(25위·이상 미국)가 받았다. /연합뉴스

KIA, 30일 '유니폼 데이'

KIA 타이거즈가 오는 30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리는 2022 신한은행 SOL KBO리그 SSG 랜더스와의 경기에서 '광주 유니폼'을 입고 그라운드에 선다.

KIA는 이날 광주 유니폼을 입고 뛰면서 올 7~9월 중 광주에서 펼쳐지는 프린지페스티벌과 광주국제영화제, 맥주축제를 홍보한다.

광주 유니폼은 흰 바탕에 광주의 영문인 'GWANGJU'를 감청색으로 수놓았으며, 노란색 테두리로 포인트를 줬다. 감청색과 노란색은 모두 광주의 상징색이다. 유니폼의 모자 역시 감청색 T 로고에 노란색의 테두리가 포인트다.

유니폼의 어깨와 모자 옆에는 광주의 지형도를 바탕으로 랜드마크인 무등산 서석대와 챔피언스 필드 이미지를 조합해 만든 엠블럼이 부착돼 있다.

한편 KIA는 광주 연고팀으로서 자부심을 강조하는 한편 지역민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지난 2020년 광주 특별 유니폼을 만들었다. /조혜원 기자